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3, pp.613-621, Ma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613

JCCT 2022-5-76

간호학과 교수의 비대면 강의 전환 경험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to Non-face-to-face Lecture in Nursing Professors

정승은*

Seung Eun Chu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교수의 면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는 비대면 강의를 적어도 두 학기 이상 진행한 적이 있는 17명의 간호학과 교수이며, 경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심층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주제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비대면 강의에 따른 변화와 전개과정, 학생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회적 맥락과 사회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비대면 강의 전환 경험을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과 교수들은 사회적 변화 흐름에 따라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비대면 강의, 간호교육, 교수자, 질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ransition experience from face-to-face lectures by nursing professors to non-face-to-face lectures. In this study, 17 nursing professors who have conducted non-face-to-face lectures for at least two semester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according to the empirical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topic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results described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non-face-to-face lectures, focusing on the topics of change and development process according to non-face-to-face lectures, relationship with students, self-relationship, social context and sociality. In conclusion, nursing professors are expected to receive sufficient support to autonomously select non-face-to-face lectures using advanced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trend of social change.

Key words : Non-face-to-face Lecture, Nursing Education, Professor, Qualitative Research

Ⅰ. 서 론

최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팬데믹을 선포하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의 수준을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1].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피하고자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 대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권장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2]. 이에 모든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였고, 이 중 91%에 달하는 대학이 개강 연기 이후 비대면으로 수업을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9일

Received: April 30, 2022 / Revised: May 6, 2022
Accepted: May 9, 2022
*Corresponding Author: sechung@ut.ac.kr
Dep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대체하였다[3].

비대면 강의로 개강을 맞이한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 홈페이지에 접속이 몰리면서 서버가 순식간에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원격수업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보이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학생들은 부실한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기도 하였다[4][5][6][7]. 또한, 교수들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 경험이 거의 없어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와 전달방식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의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특성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7]. 간호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학습환경에서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교수·학습법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8]. 최근에는 간호교육인증 평가기준 중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임교원의 신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연령층이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를 차지함으로써 세대별 업무특성과 컴퓨터 및 디지털 기반의 강의매체 활용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9]. 세대별 특성이 다른 교수자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상태가 바뀌는 과정으로서 전환[10][11]을 맞이하면서 비자발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12].

지금까지 간호학 분야에서 비대면 강의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학습자의 학습결과 및 학습태도, 학습성과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13][14][15][16]. 반면, 교수자가 경험한 비대면 강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므로 간호학과 교수들이 경험한 비대면 강의 현상을 그들이 처한 지평과 맥락 속에 숨어 있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 탐색[17][18]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이론 및 실습교과목의 면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의 비대면 강의의 전환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며, 비대면 강의가 일상화된 현재와 미래의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 생생한 경험 그 자체를 해명하고자 경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목적적 할당 및 눈덩이 표본추출을 통해 간호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할당표본추출을 위해 연령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 X세대(1965~1979년생), M세대(1980~1994년생)로 분류하여[9][19] 세대별 5명 이상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실시간 원격수업, 녹화영상, 녹음자료, 유튜브 등의 비대면 강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동의한 자이며, 단순히 PPT를 활용한 강의자료나 과제물 대체를 통한 비대면 강의를 한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자는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수집되지 않고 중복이 발생할 때까지 자료의 적절성과 충분성[20]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 5명, X세대 7명, M세대 5명으로 총 17명의 간호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36~64세이었고, 성별은 모두 여자였다. 강의경력은 5~32년이었고, 비대면 강의를 적어도 2학기 이상 진행하였다. 참여자 중 13명은 이론과 실습교과목에서 비대면으로 강의하였으며, 강의형태는 실시간화상(Zoom, Teams, Webex), 자체 제작 동영상 콘텐츠 활용 중심(교수자 모습 등장 또는 음성만 제공), 외부 동영상 콘텐츠 활용 중심(YouTube, MOOC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활용한 장비는 웹캠, 마이크, 이어폰, 판서용 패드 등이었고, 주관적인 강의매체 활용능력은 상 수준이 5명, 중 수준이 9명, 하 수준이 3명이었다.

3. 자료수집

연구자는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의 소속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KNUT IRB 2020-15, 2021-21)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참여의 철회가 언제라도 가능하고, 면담에 따른 위험이나 해로운 점은 없을 것이며, 모든 면담자료는 비밀을 유지하고, 이름이나 대학명 등의 개인 정보는 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도중 원치 않는 경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연구자료는 연구자만이 다루며 3년간 보관 후 폐기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른 서면화된 연구참여동의서를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대학의 간호학과 전임교원으로 심층적인 개별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을 시작하면서 “면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바뀌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여 비대면 강의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할 때 목표(바람)로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면대면 강의와 비교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면대면 강의와 비교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경험이 개인의 삶이나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비대면 강의 전환 경험을 파악하고자 경험적 현상학적 환원과 해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내용에 대한 선이해가 타당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자료수집뿐 아니라 분석단계에서도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시간은 연구참여자의 개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45분까지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전화로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허락하에 디지털 녹음기(ICD-TX50, SONY)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마친 후 한글파일로 직접 필사하여 숫자로 파일명을 부여한 필사본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4. 자료분석

연구자는 Braun & Clarke [21]이 제시한 질적 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경험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고, 면담의 필사본을 중심으로 문헌 해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18].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필사본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녹음파일을 확인하였다.

2) 필사본의 의미 있는 부분을 분류하여 코드화한 후 필사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코딩 과정을 반복하였다.

3) 많은 다양한 코드에서 잠정적인 주제와 대조를 하고, 잠정적인 주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제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4) 추출한 주제가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다.

5) 최종적으로 주제명를 확정하고, 면담내용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간호학과 교수의 비대면 강의 전환 경험을 기술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변화와 전개과정, 학생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회적 맥락과 사회성의 주제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의 면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변화와 전개과정

1)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강의에 의의를 둠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의무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대면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비대면 강의를 위한 준비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은 비대면 강의를 의무화하여 전면 강의방식으로 채택하였으며, 교수들에게 비대면 강의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의 기회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학과 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기존의 대면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PPT 강의자료를 중심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한 강의 파일을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에 탑재하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수준으로 시작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전산시스템과 장비,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는 데 매우 부담스러웠고, 이들을

사용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면 강의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어 힘들었다고 하였다. 이때 연구년이었거나 다음 학기에 연구년을 맞이할 참여자들의 경우 비대면 강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비대면으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년을 직전에 둔 그 학기였으니까 좀 저도 마음이 뜨고 대충 하고 빨리 쉬러 가야지 이랬던 것 같아요. (중략)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한 학기만 잘 버티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노력 없이 그냥 간단하게. 또 학교에서도 50분 수업에 25분만 만들면은 나머지 25분은 학생들하고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해서 50분 수업을 25분 동영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바람에, 그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25분짜리를 간단하게 만들고 애를 안 쓰고 그렇게 하고는 갔죠. (참여자 12, X세대)

2) 다각적으로 향상된 강의를 위해 정성을 쏟음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강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방식이 되었다. 적어도 한 학기 이상 비대면 강의를 접한 연구참여자들은 강의자료 구성, 녹음 또는 녹화, 실시간 화상강의를 위해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열의와 정성을 쏟았다. 비대면 강의를 녹음하거나 녹화한 파일이 LMS에 탑재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인터넷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학생을 위해 장기간 공개되므로 간호와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정확한 내용을 다루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련화된 설명으로 강의파일을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저작권 등의 침해를 피하고자 강의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강의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었다. 특히 세대를 불문하고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새로운 강의기법(소그룹 토의 및 발표, vSim, 즉각적인 온라인 퀴즈 또는 설문 등) 적용과 장비(웹캠, 카메라 거치대, 마이크, 이어폰,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판서용 패드 등) 구입, 다양한 어플리케이션[패들렛(Padlet), 카훗(Kahoot), 멘티미터(Mentimeter), 드로보드(drawboard), 곰믹스 등]의 활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된 비대면 강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도하였다.

방학 지나고 나니깐 녹음하고 녹화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또 까먹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연습도 하고, 이게 장비빨인가 싶어서 마이크랑 카메라랑 삼발이랑 다 샀어요. 지난 학기보단 더 잘해야 애들한테 면이 설 것 같아서 나름 정성을 다했죠. (참여자 2, 베이비부머 세대)

저는 사실 컴퓨터를 조금 잘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곰믹스 이런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활용했었거든요.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강의 때 곰믹스를 활용했던 거는 제가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녹음을 하면 녹음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곰믹스에 이 음성 녹음파일을 넣고 영상 화면은 제가 다른 사진이라든지 텍스트, 배경음악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파일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중략) 드로보드 pdf 어플은 제가 화면을 띄워놓고 필기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무료 어플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써보고 그냥 이게 되게 좀 쉽게 사용 가능해가지고, 실제로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참여자 17, M세대)

2. 학생과의 관계

1) 소통의 정도가 다양함

비대면 강의에서 학생과의 소통 정도가 연구참여자의 세대별,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중 수준 이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웹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예로 카카오톡, 밴드, 블로그, 학내 서비스 등)를 통해 학생과 소통하였으나 원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다만 강의 출석여부와 교과목의 성적 확인을 위한 학생들이 기존의 대면 강의 때보다 연락을 더 많이 하였다고 한다. 한편 X세대와 M세대인 참여자들은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SNS의 활용도가 높아 학생들과의 소통방식이 달라졌을 뿐 대면 강의 때보다 훨씬 활발해졌다고 보고하였다.

강의 시작할 때 출석을 꼭 불렀는데, 이때 얼굴을 꼭 화면에 보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얼굴을 보면. 근데 수업하다 보면 학생 한 명, 두 명이 슬금슬금 화면을 끄던지,

카메라를 올려서 정수리만 보이게 하던지 이러던데. 이럴 때 아주 벽보고 강의하는 거 같아서 안 좋더라구요. (참여자 1, 베이비부머 세대)

저도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될까 걱정했는데,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 출석도 확인하고 성적도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니까 뭐 얼굴을 안 본다 뿐이지 의사소통이 훨씬 활발해진 느낌이예요. 그러다 보니 밤이고 주말이고 없어요, 애들이. 그건 좀 피곤한 일이지만. 사실 저도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으니 편하기도 해요. (참여자 5, X세대)

2)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상호작용함

연구참여자들은 컴퓨터 모니터에 이름만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강의분량을 조절하거나 설명의 수준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실시간화상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디오켜기나 화면공유를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을 때 순간적인 긴장이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다고 하였다. 대면 강의에 익숙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M세대의 참여자 역시 대면 강의를 할 때 살아있는 느낌이 학생에게 전달되는 반면, 비대면 강의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답답함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강의 진행 시 변화를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하여 에너지가 없거나 낮은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만, 상호 간에 에너지가 교류하려면 동영상에 교수자 모습을 포함하거나 실시간화상을 통한 강의에서는 학생에게 비디오를 켠 상태에서 강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에너지 흐름에 방해가 될 요인들을 배제해줄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가 아닌 집이나 조용한 곳에서 책상에 앉아 집중하고, 수업에 임하는 기본적인 용모와 의복을 갖추고, 반려동물이나 인형을 멀리하기 등이었다.

화면을 보고 강의하다보면 학생들 반응을 볼 수 없어 강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없는 강의란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8, 베이비부머 세대)

학원강사는 지식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이외에 이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고민이나 취업이나 이런 개인 사회에는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네 그냥 지식만 전달해서 이 학생이 시험 합격만 하면 되는 목적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는 지식 전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 생활이라든지 취업이나 진로 고민 이런 것들도 다 저희는 포괄적으로 상담을 해야되는데, 비대면으로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17, M세대)

3. 자신과의 관계

1)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움

연구참여자 모두는 동영상으로 제작된 강의를 1주일 기간 동안 LMS에 탑재하는 비대면 강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자유로움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실이나 집에서 편안한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차분하게 강의준비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이때 필요한 내용만 준비하여 녹음하고 수업시간 전에 미리 업로드하니 강의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였다. 비대면 강의의 최대 장점인 시공간의 자유로움은 모든 참여자들에서 확인되었던 내용이지만, 이러한 편리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비대면 강의에 익숙해진 것이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환경적으로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질까 봐 조금 그게 걱정이 됐고 우려가 됐고. 이렇게 편안함 때문에 익숙해질까 봐 그게 불편했어요. (참여자 10, X세대)

2) 강의평가 결과에 민감해짐

대부분 대학은 학기 말에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강의평가를 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의 객관적, 주관적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비대면 강의 후 강의평가 결과는 대면 강의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결과를 받았다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강의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통해 강의자료를 작성하고 강의에 임했지만, 학생들 앞에서 컴퓨터 활용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긴장감이 고조에 달하고 결국 강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낮은 강의 평가결과로 인해 참여자들은 비대면 강의준비 및 운영에 쏟은 열의와 노력, 정성과 성의에 비해 의기소침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젊은 교수들보다는 이런 컴퓨터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구요. (참여자 11, 베이비부머 세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하거나 그럴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동굴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강의평가를... 그러니까 강의의 퀄리티가, 교수자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불만 사항,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상황들의 컴플레인이 강의평가에 들어가서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한 학기를 수업하고 나서 되게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참여자 16, X세대)

4. 사회적 맥락과 사회성

1) 미래사회의 흐름에 편승해야 함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에듀테크 교수법을 적용함으로써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공존하는 시대이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대면 강의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았지만, 시대적으로 사회변화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교육의 본질과 내용과 이런 것들에는 변화가 없을지언정 어떤 전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변화할 거고 그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 어쨌든 그 흐름에 저항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흐름에 저항한다기보다도 어차피 변화하는 흐름이라면은 얼른 갈아타야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2, X세대)

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뒤처지지 않고 발맞춰 나가야죠. (참여자 4, M세대)

2) 자율적 강의방식 선택의 토대를 마련함

코로나19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감염병 확산이 앞으로도 발생가능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하나의 강의방식을 고집하기보다 간호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강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강의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제 온라인 비대면 강의는 의무가 아니라 과목에 적합하다 싶으면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학교에서 교수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면 저는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섞어서 활용하고 싶어요. (참여자 3, X세대)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면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강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경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비대면 강의 전환의 경험을 주제와 세대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상황은 면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의지나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적이고 필수적으로 단순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비대면 강의를 수행한 사실에 의의를 두고, 이후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향상된 강의를 위해 정성을 쏟으며 비대면 강의를 운영하였다. 이는 강의실에서 진행된 대면 강의의 오래된 가치와 관례, 믿음을 버리는 과정으로서 비대면 강의의 전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10][22]. 특히 교수자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학습하기 위한 시간과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설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 연구결과[23][24]와 일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상 수준의 경우 비대면 강의를 위해 인터넷, 장비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단순하지 않은 심화된 비대면 강의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과 온라인 수업 방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6]. 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과 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업무 수행과 자아 가치를 동급으로 생각하여 워커홀릭이라 불리는 경향이 있지만[25], 전산업무와 새로운 기계 조작에 서툴러 업무 속도가 떨어지고 젊은 연령층과 일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26]. 그러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구참여자들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신속함과 유능성에 뒤쳐진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X세대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시간제한을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여 팀이나 직장에 충성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25]. M세대는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로 알려졌다. 이 세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장치 및 소셜 미디어의 사용 증가와 친숙함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M세대의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생 시기부터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전산업무의 유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호학과 교수들은 비대면 강의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수자인 자신과의 관계성의 전환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통과 몰입을 높이고, 상호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강의에 몰입하는 데 교수자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화면에서 교수자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27].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수자를 대상으로 학생들과의 얼굴을 마주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대면 강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으며, 반복과 심화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 절감의 이유로 간호학생은 더욱 선호하였다[16]. 본 연구는 간호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비대면 강의로 구성된 수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강의내용을 접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으므로 이는 본 연구결과,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비대면 강의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과 사회성을 고려한다면 미래사회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 교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비대면 강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자 개인의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전문조직의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의 비대면 강의는 코로나19로 수동적이고 의무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전환 경험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된 도전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 인지적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깊은 경험의 과정이다[28]. 또한 비대면 강의를 통해 창의적 경험을 촉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수자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성[10]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비대면 강의나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강의를 이끄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경험한 비대면 강의의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면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들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강의방식 전환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과 교수들의 비대면 강의의 질 개선과 자율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채택,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교육혁신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s Crisis Response Bioterrorism Division, "Raise the risk alert for infectious diseases to 'serious' level and respond," February, 2020.
[2]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academic operation and support plan in education for COVID-19 response," May 2020.
[3] Korea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academic management after the opening of the semester at the university due to COVID-19, 2020. Retrieved from http://kapup.org/sub/sub02_02.php?boardid=notice&mode=view&idx=28&sk=&sw=&offset=&category=&goPage=

[4] J.I. Cheon, "Problems at universities that replaced online lectures on the first day of university. Yonhapnews. March 16, 2020.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6172000054?section=search

[5] C-H. Choi, J. Kwon, and S.E. Chung. "The experiences of non-face-to-face class in engineering students: Focusing on S university," *Transactions of the KSME C: Technology and Education*, Vol. 9, No. 2, pp. 133-139, 2021.

[6] W.Y. Kim, Y.S. Kim, and B.S. Yang, "Eight hundred students in a 50-person course, mock the professors and server down... The first day of the "Cyber Beginning" college crying and laughing," Chosun Media, March 16, 2020. Retrieved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6/2020031603292.html

[7] P. Oh, "Professor, please turn off the microphone when you go to the bathroom, so funny," Chosunedu, March 20, 2020. Retrieved from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1197.html

[8] I.W. Park, "The direction of building learning space for future educatio,". Report of specialized committee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pp. 176-207, 2018.

[9] J.H. Kim, "Research Trends and the Implications of Generation Related Studies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2020.

[10]L.M. Brammer, "Coping with life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 15, pp. 239-253, 1992.

[11]S.Y. Hong, and S.T. Lim, "Transition types and their diachronic variations in the first semeste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6, No. 1, pp. 47-84, March 2018.

[12]S. Kim, S. Cho, and J. Ki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structor's feedback, perceived student engagement, learning outcome and satisfaction in university online cours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7, No .4, pp. 175-197, 2021. http://doi.org/10.26857/JLLS.2021.11.17.4.175

[13]S.H. Choi, H.S. So, J.Y. Choi, S.H. Yoo, S.Y. Yun, M.H. Kim, and M.O. Song, "Comparison of blended practicum combined e-learning between cooperative and individual learning on learning outco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41-349, 2014.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41

[14]S-O. Lee, and M. Suh, "Effect of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strategies on nursing student interaction patterns, task performance and learning attitude in web based team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77-586, 2014.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77

[15]S-Y. Kim, "A study according to the learning outcomes of non-face-to-face classes and lecture satisfact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19, No. 6, pp. 123-129, 2021. http://doi.org/10.22678/JIC.2021.19.6.123

[16]S-J. Kim,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due to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7, pp. 118-127, 2021. http://doi.org/10.22156/CS4SMB.2021.11.07.118

[17]P.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s view it, In R.A. Valle, and M. King,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tl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8]N. Lee, "P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Seoul: Hangilsa, 2014.

[19]Y.G. Suh, E-J. Ju, and Y.K. Suh, "Cultural differences on perfume and cosmetics consumptions. *Journal of Culture Industry*, Vol. 16, No. 4, pp. 79-91, 2016. http://doi.org/10.26857/JLLS.2021.11.17.4.175

[20]L. Richards, and J.M. Morse, "Readme first for a user's guide qualitative methods," (2nd ed), Thousand Oakes, CA: Sage, 2012.

[21]V. Braun, and V.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13, No. 6, pp. 77-101, 2006. http://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22]J. Moon, "A study of meaning for transitional experience of a woman who turned from a client to a counselor,"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23, No. 1, pp. 193-220, 2020. http://doi.org/10.17318/jae.2020.23.1.006

[23]J. Do, "An investigation of design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face-to-face course into online Cours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6, No. 2, pp. 153-173, 2020. http://doi.org/10.24159/joec.2020.26.2.153

[24]M-H. Yoo, "An auo-ethnographic study on online dance class experiences at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 79, No. 3, pp. 1-13, 2020.
[25]M. Phillips, "Embracing the multigenerational nursing team," *MedSurg Nursing*, Vol. 25, No. 3, pp. 197-199, 2016.
[26]S.I. Choi, "Analysis of hospital nurses' generation experience: Application of focus group interview," Master's thesis, Seoul Natonal University, Seoul, 2016.
[27]J.S. Kang, and T.Y. Kang, "Analysis of content components that influence learning participation in online lectures for multimedia practice subje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 26, No. 4, pp. 19-32, 2020.
[28]P.S. Adler, "The transitional experience: An alternative view of culture shock,"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 15, No. 4, pp. 13 - 23, 1975. https://doi.org/10.1177/0022167875015004 03

※ 2020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 하였음.